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정은경 (중앙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5. 여성상 및 서사양식 |
| 2. 전기 및 서지 | 6. 기독교 및 사상원류 |
| 3. 시 연구 및 중국체험 | 7. 장중인물과 실제 모델 |
| 4. 영화 및 다매체 | 8.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2000년대 이후 부각된 심훈 연구의 새로운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의미, 남겨진 과제를 검토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심훈 연구의 새로운 논의와 성과는 ‘심훈 관련 텍스트의 집대성, 영화 및 다매체, 여성상, 서사양식, 사상성’으로 모아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 및 서지’에서는 심훈의 복역기간, 중국 체류 시기, 『탈춤』 연재 시기, 카프 탈퇴 시기, 『상록수』의 영화화 실패 원인, 심훈 자료를 집대성한 심훈 전집 출간(글누리, 2016), 신체시와 노동가 발굴, 『황공의 최후』의 서지 사항 논란 등이다. ‘시 연구 및 중국체험’의 측면에서는 심훈 시 전체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 이루어졌으나 ‘심훈 시조의 미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전체 편수 논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또한 ‘중국 체류기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심훈 시 해석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동했다.

‘영화 및 다매체’는 2000년대 이후 심훈 연구사에서 가장 새롭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영화인 심훈에 주목하여 그가 남긴 영화, 영화소설, 영화비평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연구들은 소설로 이어져 ‘상호텍스트성, 대중성, 예술성, 전문성, 계몽성’ 등의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여성상 & 서사양식’에서는 심훈 소설에서의 젠더문제를 ‘구여성, 신여성, 동지적 사랑’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통속소설’을 과거 신판소설을 이어 받은, 새로운 근대 서사체 모델로 의미매김하기도 했다.

‘기독교 및 사상적 원류’에서는 심훈의 『상록수』의 희생정신과 계몽성을 기독교, 혹은 무로후세 사상과 관련하여 논의한 측면이 주목된다. ‘작중인물 및 실제 모델’은 심훈이 실제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작품에서 자주 호명하고 있고, 창작에서도 주변 모델을 참조한다고 고백한 바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시 뿐 아니라 『동방의 애인』의 인물과 실제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적 시각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심훈 연구에서 ‘아동문학, 번역소설’은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보인다.

주제어: 심훈 연구사, 영화, 다매체, 사상성, 중국 체류, 여성상, 서사체, 심훈 시조

1. 서론

『상록수』를 쓴 농촌계몽소설 작가, 「그날이 오면」으로 대표되는 항일시인은 2000년대 이전까지 심훈을 호명하는 주된 방식이었다. 짧은 생애(1901~1936) 동안 그가 전방위적으로 펼친 다양한 문화 활동, 즉 시(시조), 소설, 영화(영화소설, 시나리오, 연출, 배우)와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다층성(대중성, 저널리스트, 번역·번안 작가, 여성상, 영웅서사, 기독교, 시조와 신체시,

아동극, 영화평론, 중국 체험 등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이 글은 이렇듯 2000년대 이후 부각된 심훈 연구의 새로운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의미, 남겨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¹⁾ 논의의 편의상 항목을 1) 전기 및 서지 2) 시 연구 및 중국 체험 3) 영화 및 다매체 4) 여성상 및 서사양식 5) 기독교 및 사상적 원류 6) 작중인물과 실제 모델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2. 전기 및 서지

심훈의 전기 연구는 심훈의 생애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한 유병석의 논의²⁾와 1966년 탐구당에서 출간된 『심훈 전집』의 연보(심재호 작성)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심훈 연구는 대개 이 자료들을³⁾ 참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심훈 전기 사항을 유병석⁴⁾, 심재호, 그리고 관련 논문들⁵⁾과 최근 출간된 심훈 전집(글누리)⁶⁾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정리되거나 논점으로

-
- 1) 2015년까지의 심훈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4편의 학위논문 중 16편의 논문이 8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상록수』를 중심으로 한 장편소설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2000년대 이후 학위논문 수가 감소한 반면, 학술논문의 경우 총 35편의 논문 중 28편이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되었고 이 논문들은 이전까지의 편향된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정, 「심훈 문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제1회 심훈문학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5. 9. 18.
 - 2) 유병석, 「심훈 연구-생애와 작품」, 서울대 석사, 1964.
 - 3) 심훈 생애 고찰에서 또 하나 정전으로 참고되는 것은 신경림의 글이다. -신경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지문사, 1982.
 - 4) 본고에서는 유병석, 「심훈의 생애 연구」(『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를 저본으로 삼음.
 - 5)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김학성 외, 『韓國 近代 文學史의 爭點』, 창작과 비평, 1990.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론집』 34, 2006.
조선영, 「심훈 단편소설에 나타난 창작방법 고찰」, 『한국현대소설연구』 65, 2017.

남아있는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글누림 전집의 연보는 유병석과 심재호의 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좀더 보강되고 추가된 것이 있다.⁷⁾

첫째, 3·1운동 이후 심훈의 복역기간과 관련되어서이다. 기존의 연보(유영석, 심재호, 문영진)에서는 7월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한기형의 9월 석방설⁸⁾을 거쳐 글누림 전집에서는 11월 집행유예로 정리되었다.⁹⁾

두 번째, 중국으로 건너간 시기이다. 유영석, 심재호는 1920년 겨울로 정리하고 있으나 1919년 겨울이라고 적고 있는 심훈의 글로 인해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2장에서 보완). 글누림도 1920년 겨울이라고 적고 있는데 논란은 1920년으로 정리된 듯하다. 귀국이 1923년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염군사 참가 시기와 극문회 조직 시기에 대한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영석은 “1922년 염군사 조직에 심대섭이 참가하였다 함은 잘못”이고, 1922년 최승일을 중심으로 ‘극문회’ 조직했다는 설도 1923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글누림 전집에서는 1922년 “9월 이적

-
- 6) 글누림에서 2016년 출간된 『심훈 전집』의 작가 생애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호가 작성한 『심훈문학전집(3)』(탐구당, 1966)의 작가연보, 이 어령의 『한국작가전기연구』(상) (동화출판공사, 1975), 신경림의 『심훈의 문학과 생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지문사, 1982),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2001』(대산재단/민족문학작가회의)에 문영진이 작성한 ‘심훈-작가연보’ 등을 참고하여 편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심훈 시가집 외, 심훈 전집』 1, 김종욱, 박정희 엮음, 350쪽.
 - 7) 가령 누이 원섭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것과 「찬미가에 싸인 원훈」이 장기림의 옥사를 둘러싼 경험을 반영했다는 것 등.
 - 8) “심훈이 정확하게 얼마간 복역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심훈문학전집』의 연보는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했지만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의 작성일은 1919년 8월 29일(『심훈문학전집』1, 23면)이다. 미결기간을 산입하여 6개월을 복역했다고 한다면 1919년 9월쯤 석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습작기(1919~1920)의 심훈」, 위의 책, 194쪽)
 - 9) 심훈이 11월 6일 선고 받음과 동시에 석방되었다는 국가보훈처의 자료가 그 근거이다.

효, 이호, 김홍과, 김두수, 최승일, 김영팔, 송영 등과 함께 ‘염군사(焰群社)’를 조직하였다.(이들중에 귀국한 심훈이 염군사의 조직단계에서부터 동참을 한 것인지 귀국 후 가입한 것인지 불분명함)”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에 대해서는 최원식(1990)이 권영민의 카프 자료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심훈이 염군사에 가담한 것은 1923년 조직 확장 때 추가로 가입한 것이며 극문회 조직도 1923년이다.’¹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심훈 전기를 연구한 주인(2006)은 심훈의 염군사 가담을 24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주의 경향성에 대해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¹¹⁾, 이 시기 문제는 좀더 확정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셋째, 『탈춤』 연재 시기인데, 유영석에 의하면 ‘1925년 11월 9일~12월 13일까지 33회 동아일보 연재’로 되어있으나 심재호와 글누림은 12월 16일 34회 연재로 정리하고 있다. 정확한 서지 사항이 있으므로 후자가 맞다.

넷째, 카프 탈퇴 혹은 이들과 거리를 둔 시기와 관련해서이다. 카프 창립에 이름을 올린 심훈이 1926년 12월 24일 개최된 카프임시 총회 명부¹²⁾를

10) “심훈은 1923년 ‘염군사(焰群社)’에 가담한다. 염군사는 1922년 송영(宋影)·김두수(金斗洙)·이호(李浩)·박세영(朴世永) 등이 조직한, “무산계급 해방문화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 계급문제 단체이다. (중략-필자) 염군사는 기관지 『염군』의 창간호와 2화 거듭 발행금지처분을 받게 되면서 1923년 조직확장에 들어가 이때 심훈·최승일(崔承一)·김영팔(金永八) 등이 새로이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위의 책, 241쪽.

11) 주인은 김학렬의 증언(각주 18참조)을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염군사’는 1924년 同人들이 도쿄, 고베, 간도, 천진 등으로 떠난 것을 계기로 활동이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組織內에 문학부, 극부, 음악부를 건립하여 활동을 再起하는데, 이때서야 경기고보 출신의 심훈이 등장한다. 따라서 심훈은 ‘염군사’의 出發點에서 同行한 것이 아니라 ‘염군사’의 기본 조직이 와해되는 시점 즉, 다른 측면에서는 回生해보려는 起點에서 同人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염군사’의 초기 멤버와 그 出發點이 달랐음이 확인된다. 그 와중에도 심훈은 문학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극부에 소속되어 있음을 살필 때, 심훈 자신이 처음부터 無産階級의 해방 文學보다는, 전방위적 해방 文化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론집』 34, 2006, 254~255쪽.

12) 권영민, 『카프의 조직과 해체』 2, 『문예중앙』, 1988 여름호.

참고삼아 최원식은 카프가 일정한 체계를 갖춘 1926년 말에 송영과 같이 탈퇴한 것¹³⁾으로, 글누림 편자들도 이를 근거로 탈퇴 시기를 1928년 이전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⁴⁾

다섯째, 심재호(1966)의 연보와 글누림 전집(2016)에는 1936년 『상록수』이 영화화 계획이 일제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유영석(1968)에는 심훈의 작고로 허사가 되었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와 관련해서는 심훈의 작가의식의 향방의 논쟁이 ‘중국 체류기’ 지점에 있는 만큼, 중국체류 시절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힘에 부치는 일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다.

1951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7권의 『심훈 전집』이 발간된 후 1966년 탐구당에서 3권의 『심훈문학전집』, 차림에서 2000년 발간한 육필원고인 『심훈문학전집① -그날이 오면(영인본)』¹⁵⁾ 2016년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 8권(글누림)이 나왔다. 2016년의 『심훈 전집』은 그간 연구사에서 정전으로 삼았던 1966년 『심훈문학전집』에 실린 원고들은 물론 이후 새롭게 발굴된 자료, 그리고 영화평론, 시나리오, 번역소설, 설문 등을 추가해서 심훈의 글들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전집의 의의는 정본 심훈의 자료 정리 이외에 ‘문학인 심훈’에서 ‘영화인 심훈’으로의 확장된 지평을 열어보였다는 것이다.

이 전집은 한기형(2003)이 발굴한 신체시 「새벽빛」(필명 금강샘, 『근화』 창간호, 1920. 6), 소설 「찬미가에 싸인 원혼」(심대섭, 『신청년』 3, 1920. 8. 1),

13) 최원식, 위의 글, 242쪽.

14) 주인은 심훈의 카프 관련성을 자료를 통해 추적하면서 심훈의 카프 활동이 전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주인, 위의 글, 256~257쪽.

15) 심훈의 육필원고와 1949년 한성도서에서 나온 유고시집 『그날이 오면』의 비교 연구는 조제웅의 『심훈 시 연구』(영남대 박사논문, 2006)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시가집 관련한 원본 텍스트를 둘러싼 문제는 주인이 고찰한 바 있다.-주인, 위의 글.

노동가 「로동의 노래」(미퇴도레미쉴쉴곡쫘)(심대섭, 『공제』 2호(1920년 10. 11)의 「현상노동가」 모집발표에 투고)도 수록되어 있다. 권보드래는 동인지 『신문예』 2호(1924년 3월 1일 발행)¹⁶⁾와 1,3호의 목차 자료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¹⁷⁾목차만 남아있는 창간호에는 심대섭이란 이름으로 「목숨의 행진곡」(신시), 「선술집」(회곡), 3호에는 「먼동이 틀 때」(회곡)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그간 송일작의 「선술집」이라 기록되었던 자료¹⁸⁾를 의문에 부치는 것으로, 앞으로 확인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또 하나 조선영(2017)¹⁹⁾에 의하면, 단편 소설 「황공의 최후」의 서지사항은 좀더 검토되어야할 부분이다. 이 글에 따르면, 글누림 전집과 탐구당 전집에 실린 「황공의 최후」는 1936년 1월 『신동아』에 수록된 것인데, 1959년 민중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학전집』 17에 수록된 「황공의 최후」와는 다른 것이다. 심훈 연보에 따르면 이 소설은 「사지의 일생」이라는 수필을 고쳐서 1933년 초고를 탈고한 것인데, 이 수필과 초고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훈 전기와 서지 사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과 오류 등을 보완·수정해가면 될 것이다.

3. 시 연구 및 중국 체험

심훈의 시 연구는 심훈 연구사를 통틀어 소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

16) 『신문예』 2호에 심훈은 심대섭이라는 본명으로 「미친 놈의 기도」 「돌아가지이다」라는 두 편의 시를 발표했다. 4쪽에 달하는 「미친 놈의 기도」는 전문 삭제되어 있어 「돌아가지이다」 한 편을 확인할 수 있다. 권보드래, 「심훈의 시와 회곡, 그 밖에 극(劇)과 아동문학 자료」, 『근대서지』 10, 2014.

17) 권보드래, 위의 글.

18) 김학렬, 「앵봉산인(송영)의 「조선프로예술운동소사(1)」,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론집』 34, 2006, 255쪽에서 재인용.

19) 조선영, 「심훈 단편소설에 나타난 창작방법 고찰」, 『한국현대소설연구』 65, 2017.

한다.²⁰⁾ 심훈 시 연구는 2000년대 이전 대체로 항일시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신경림, 최동호, 김재홍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²¹⁾ 이러한 관점은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²²⁾되었으나 적은 양의 연구에서나마 시연구의 분기를 보여준다.

조제웅의 「심훈 시 연구」(영남대 박사, 2006)는 심훈 시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박사논문으로 심훈 시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심훈 시 전체를 ‘망명자의 환과 낭만적 서정시’ ‘민족의식 고양과 항일 저항시’ ‘민중 계몽과 현실 참여’로 구분한 점은 이전의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를 소설, 수필, 일기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성과는 1949년 심명섭에 의해 간행된 유고시집과 1995년 공개되어 영인본으로 간행된 심훈의 육필 원고²³⁾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차이를 면밀하게 고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집 표제, 구성, 소재, 시 원고의 가감 등에 대한 고증은 이전의 원전 확정과 텍스트 해석의

20) 김민정의 고찰에 의하면, 총 학위논문은 8편, 학술논문은 5편에 불과하다. -위의 글.

21) 신경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지문사, 1982.

최동호,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이여-7인의 항일 민족시집』, 시인사, 1982.

한점돌, 「심훈의 시와 소설을 통해 본 작가의식의 변천과정」, 『국어교육』 41, 1982.

김이상, 「심훈 시의 연구」, 『어문학교육』 7, 1984.

김재홍, 「심훈-저항의식과 예언자적 지성」, 『한국현대시인 연구』, 일지사, 1990.

고광현, 『심훈의 시 연구: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경희대 석사, 1984.

이병문, 「한국 항일시에 관한 연구: 심훈, 윤동주, 이육사를 중심으로」, 공주사범대학 석사, 1984.

노재찬, 「심훈의 「그날이 오면」: 이 시에 충만한 항일민족 정신의 소유 고」, 『교사교육연구』 11, 1985.

김 선, 「객혈처럼 쏟아낸 저항의 노래: 심훈과 작가적 모랄과 고뇌에 관하여」, 『비평문학』 5, 1991.

박명순, 「심훈 시 연구」, 한국외대 석사, 1997.

-이들 연구는 대체로 심훈 시를 세 시기(1919~22, 1923~31, 1932~36)로 구분하여 작가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22) 조리영, 「한중 근대 저항시 비교 연구: 1920~1930년대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2013.

23) 심훈, 『심훈 문학전집 ①-그날이 오면(영인본)』, 차림, 2000.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며, 이후 심훈 시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고증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후속 과제를 남겨놓기도 했다. 가령 이 논문에 따르면, 『그날이 오면』 이외 발굴된 시들을 전부 합치면 총 85편으로 총 114편이라 주장하는 백승구²⁴⁾의 논의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심훈이 「항주유기」의 서문격으로 쓴 글에서 ‘다만 시조체로 10여 수 벌려볼 뿐이다’라고 한 부분과 신경림이 ‘시조시’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조체시’ ‘시조시’의 형식 문제와 더불어 ‘실패한 시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남긴다.²⁵⁾

조제웅의 논의에 따라 총 85편의 시에서 19편의 시조에 주목한 신용순의 「심훈 시조 고」(2011)는 1930년을 기점으로 심훈 시조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 있다. 그에 따르면 29년의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咏春三首」가 시조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숙한 작품인 반면, 30년대에 발표된 시조들은 2편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시조형식에 기행과 서경을 담고 있다.

김준의 「심훈 시조 연구」(2017)는 이러한 신용순의 논의에 대해 심훈 시조의 완성도를 현재 통용되는 관점에서 평가했다고 반박한다. 또한 심훈의 시조가 일체의 검열을 우회하여 식민지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장르라고 보는 하상일의 견해²⁶⁾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김준에 의하면 우선 심훈은 성장과정에서부터 시조 읊기, 「적벽부」 암기 등 한문과 시조를 학습했으며, 이러한 유년의 한문 체득²⁷⁾이 이후 시조 창작으로 이어졌다. 또한 심훈이 이은상의 시조를 좋아하고, 시조를 민족 고유의 정형시로서 새

24) 백승구, 『심훈의 재발견』, 미문출판사, 1985, 글누림 전집 1권에 실린 시 편수도 조제웅의 논의에 가깝다.

25) 일례로 시조로 본다면, 신용순과 같이 ‘미숙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조체로 본다면 논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준의 문제의식과도 연관된다(“심훈의 작품에서 어느 작품을 시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다”). 「심훈 시조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6, 2017.

26) 하상일, 「심훈의 「杭州遊記」와 시조 창작의 전략」, 『비평문학』 61, 2016.

27) 고헌현의 논문은 심훈의 한문 친연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고”- 고헌현, 「심훈의 시 연구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4, 9쪽.

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피력한 것을 들어 시조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현실을 시조에 담아냈다는 주장한다. 또한 심훈 시조가 고시조의 형태를 크게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장의 자유를 추구했다고 본다.

심훈 시조에 대한 논의가 시 형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고찰이라면, 내용적 측면에서의 새로움은 심훈의 중국체험²⁸⁾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는 심훈의 습작기 작품을 새롭게 발굴하고 생애 이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온 한기형의 「백량」의 잠행 혹은 만유」(2007)가 출발점으로 놓인다. 한기형은 이 글에서 심훈의 중국 체험을 실증적으로 재구하고자 했다. 심훈의 발자취를 따라 지강대학을 방문, 미션계의 지강대학의 역사를 고찰하고 심훈 글을 통해 이회영, 신채호, 이광 등과의 교류, 당시 상해의 한인사회와 공산당 대회 등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심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저 아까운 노자를 허비하며 북경과 상해, 항주의 뒷골목을 배회했을 뿐이다”라는 고백처럼 심훈의 행적을 증명할 만한 기록을 발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가 심훈의 중국행을 망명과 사회주의, 혁명, 항일 의식과 관련지어 논의하거나 중국 체험시를 두고 ‘북경과 상해의 잠행의 시, 항주의 만유의 시’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틈새들이 잠재되어 있다. 가령 심훈이 상해에서 프랑스로 가지 않고 항주에 체류한 것을 두고

28) 심훈의 중국 체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중국과 일본 등지의 디아스포라적 체험에 대한 연구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상해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들은 심훈 연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심훈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양국화, 「한국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인하대 석사, 2011.
 한기형, 「백량」의 잠행 혹은 만유」, 『민족문학사연구』 35, 2007.
 「서사의 로컬리티, 소실된 동아시아 -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63, 2008.
 윤기미, 「심훈의 중국생활과 시세계」, 『한중인문학연구』 28, 2009.
 하상일, 「식민지 시기 상해 이주 조선 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 50, 2013.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
 「심훈과 중국」, 『비평문학』 55, 2015.

그는 “프랑스에서의 극문학 공부는 따라서 하나의 트릭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해로 가야만 하는 명분이 심훈에게는 필요했던 것이다. 심훈의 상해행을 추론할 때 우리는 하나의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상해가 동아시아 사회주의운동의 중심기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447쪽)와 같은 추정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훈 중국 체험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고증을 보여준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윤기미의 「심훈의 중국생활과 시세계」(2009)는 한기형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체류기 심훈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 있는 글로, ‘현실에 대한 회의와 절망’ ‘객수와 망명’으로 구분하여 살피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심훈의 중국행 시기와 체류기간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다. 심훈이 중국에 건너간 시기에 대해서는 1919년 말과 1920년 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윤기미는 신채호와의 만남 등을 근거로 1920년 말에 건너간 것으로 본다. 윤기미에 따르면 1919년 말이라는 설은 심훈이 남긴 「단체와 우당」의 기록, 1920년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기(한국 생활 기록)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북경의 걸인」 「고루의 삼경」 「심야과황하」 「상해의 밤」의 부기된 1920년의 창작시기는 모두 1년씩 미루어야 된다.²⁹⁾이 문제에 대해 한기형도 1920년 초겨울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³⁰⁾, 그는 심훈의 모호함과 착란은 ‘의도된 착오’로 “그가 자신의 개인기록을 긴장된 정치적 텍스트로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심훈의 중국행 시기³¹⁾와 오기의 계기 등에 대한 문제는 하상일³²⁾의 지적대로 더 많은 근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하상일의 「심훈의 중국체류기 연구」(2015)는 심훈의 중국 체류기의 시를 두 가지 경향으로 이원화하여 보려는 앞선 논의에 이견을 제시한다. 그는 ‘항주의 시기는 만유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성찰의 과정이며, 심훈이 중국에

29) 심훈의 생애를 최초로 실증적으로 재구한 유병석은 1920년 겨울로 보고 있음.

30)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백랑의 잠행 혹은 만유-중국에서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35, 2007.

31) 한편, 1923년이라는 귀국 시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편이다.

32) 「심훈과 중국」, 위의 글.

서의 독립운동에서 느낀 절망과 좌절은 역설적으로 조국 독립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나아가는 계기였으므로 일관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풀어간 「심훈과 중국(2015)」에서도 심훈에게 ‘상해 체험은 민족적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상의 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귀환 후 정치적 회의를 극복하는 문학창작으로 나아갔으며, 「상록수」는 단순한 계몽서사가 아니라 검열을 우회한 사회주의 서사의 변형 혹은 파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훈 시 연구는 그동안 의식과 내용 분석 일변도에서 벗어나 좀더 다각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다. 심훈의 “나는 쓰기를 위해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³³⁾라는 말은 시에 대한 장르적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다가 미칠 듯이 과도치는 정열에 마음이 부대끼면, 죄수가 손톱 끝으로 감방의 벽을 긁어 낙서하듯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시 형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시, 시조, 신체시³⁴⁾, 노동가³⁵⁾ 등의 장르적 변천의 실제적 창작은 심훈이 개인적, 시대적으로 획득한 운율, 형식 고려 위에서 수행된 것이다. 특히 그의 현대시와 시조의 정형시적 요소, 동시대 시 형식에 대한 비교고찰 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4. 영화 및 다매체

2000년대 이후 심훈 연구사에서 가장 새로운 논의와 풍부한 맥락 형성은 ‘영화와 다매체’³⁶⁾와 관련해서이다. 심훈 소설의 영화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33) 심훈, 「머릿말씀」, 『심훈 전집 1 - 심훈 시가집 외』, 김종욱·박정의 엮음, 글누림, 2016, 15쪽.

34) 금강샘이란 필명으로 『근화』 창간호(1920. 6)에 발표한 「새벽빛」

35) 『공제』(2호, 1920.10)의 ‘현상노동가’ 모집에 투고된 「노동의 노래」

36) 김종욱, 「<상록수>의 ‘통속성’과 영화적 구성원리」, 『외국문학』, 1993, 봄.

송지현, 「심훈 직녀성 고-그 드라마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1, 1993.

김경수, 「한국 근대소설과 영화의 교섭양상 연구: 근대소설의 형성과 영화체험」,

김종욱(1993)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김종욱은 「상록수」의 통속적 성격과 한계를 ‘영화적 구성원리’라는 형식적 차원에서 해명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연구는 영화적 특성을 긍정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살피고 있다. 심훈의 영화소설 「탈춤」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김경수(1999)의 논의 이래 심훈을 비롯한 영화소설에 대한 연구는 폭과 깊이를 더했다.

식민지 시기 50여 편³⁷⁾에 달하는 영화소설의 미학적 특질과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있는 전우형(2006)의 박사논문, 식민지 시기 영화소설을 경향적 영화소설, 대중적 영화소설, 번안영화소설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 강옥희(2006)의 논문, ‘영화감독’으로서 심훈 소설의 의미를 고찰한 박정희(2007), 심훈의 영화비평의 특성을 연구한 전우형(2012), 심훈 문학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하고 있는 조혜정(2007), 김외곤(2010)의 글이 그 예

『서강어문』 제15집, 『서강어문』 15, 1999.

이호림, 「1930년대 소설과 영화의 관련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04.

전홍남, 「한국 근대소설과 영화의 교섭 양상 연구-1930년대 소설의 영화적 기법과 영화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18, 2002.

_____, 「심훈의 영화소설 <탈춤>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2, 2004.

전우형, 「1920~1930년대 영화소설 연구: 영화소설에 나타난 영상-미디어 미학의 소설적 발현 양상」, 서울대 박사, 2006. 주인, 「영화소설 정립을 위한 일고: 심훈의 「탈춤」과 영화평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2006.

강옥희, 「식민지 시기 영화소설 연구」, 『민족문학사』 32, 2006.

박정희, 「영화감독 심훈의 소설 <상록수>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1, 2007.

김화선, 「심훈의 『영원의 미소』에 나타난 근대적 글쓰기의 양상」, 『비평문학』 26, 2007.

조혜정, 「심훈의 영화적 지향성과 현실인식 연구 : <탈춤>, <만동이 틀 때>, <상록수>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31, 2007.

김외곤, 「심훈 문학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 31, 2010.

전우형, 「심훈 영화비평의 전문성과 보편성 지향의 의미」, 『대중서사연구』 28, 2012.

박정희, 「1920~30년대 한국소설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 박사, 2014.

김서은, 「매체별 일본영화의 변용양상 연구 : 原作小説, 大衆藝術, 教科書, 音樂을 중심으로」,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박사, 2014.

엄상희, 「심훈의 서사텍스트와 남성 영웅의 형상」, 『한국어문교육』 22, 2017.

37) 전우형은 총 56편으로, 강옥희는 총 51편으로 보고 있다.

들이다. 이들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수(1999)는 20년대 문인들의 영화 체험과 심훈의 영화소설 「탈춤」을 고찰하고 박태원 소설에 반영된 영화적 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우형과 전홍남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는데, 전홍남(2002)은 1930년대 소설, 특히 박태원의 소설에 반영된 영화적 기법과 비평가 의식을 통해 소설과 영화의 상호교섭 양상을, 전우형(2006)은 식민지 시기 56편에 달하는 영화소설의 미학적 특질과 전개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박정희의 논문(2007)은 영화감독으로서의 심훈을 중심으로 그의 시, 소설을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박정희는 심훈이 일생을 문인보다는 영화제작자로 살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직정적인 시 언어, 장면 중심의 서사, 스펙터클과 영웅성의 중시 등의 창작기법이 영화적 상상력에 바탕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심훈을 ‘예술로서의 영화’를 추구한 영화인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오락과 위안’은 일종의 민족자본이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출일 뿐, 심훈은 헐리웃보다는 프랑스의 인상주의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첫 장편인 『동방의 애인』도 영화소설 『탈춤』의 자장 안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소설 창작은 소설양식과 영화적 상상력의 분리와 결합의 변주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심훈의 영화비평에 주목한 전우형(2012)에 따르면 심훈의 영화비평의 특징은 ‘객관적 준거를 통한 전문화와 보편적 해석을 통한 대중 지향’이다. 심훈의 영화비평의 전문성(매체적 시각)은 문학비평에 대한 차별화와 저항적 기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계급문학과 사실주의 강령을 거부하고 ‘오락과 위안’을 추구한 것은 관객지향의 보편성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외에 심훈 문학의 매체적 특성에 주목한 것으로 김화선의 논문과 박정희의 박사논문이 있다. 김화선(2007)은 ‘편지쓰기와 신문과 잡지’라는 근대적 매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양상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소설과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있는 박정희의 논문(2014)은 신문사 기자로서의 심훈의 문학창작방법을 살피고 있다. 그는 현진건, 심훈, 염상섭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자경력이 어떻게 그들의 ‘사실성, 대중성, 정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미학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훈의 신문사 체험이 저널리즘의 계몽운동과 결합한 소설의 대중미학으로 결과한다고 보고 있다.

엄상희의 최근 논문(2017)은 1920년대 후반 영화소설 『탈춤』과 『먼동이 틀 때』의 영화적 감각이 이후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엄상희는 우선 심훈의 영화와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심훈의 영화텍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보다는 서사구성방식, 재현방식의 유사성에 그친 것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영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남성 영웅형 인물과 스펙터클, 스틸 등의 모티프와 테크닉이 영화소설, 시나리오, 장편소설에까지 공유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심훈이 영화 관련 텍스트에서는 남성영웅을 ‘세속적 악한이나 타락자들을 민중의 편에서 혼내주는 복면괴한이나 우수어린 전과자’로 그리고 있는 반면, 장편소설에서는 ‘독립운동 민중운동에 뛰어든 의지적인 혁명가’들로 등장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미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매체 관련 연구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영화인으로서 심훈이 지닌 대중성에 대한 견해이다. 뒤에 논의를 할 터이지만 잠시 언급하면, 심훈의 ‘전문적인 영화기술, 지식, 감각과 소설 창작과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다. 그러나 박정희가 심훈의 카프논자들에게 대한 반박, 즉 ‘오락과 위안으로서의 영화’에 대해 이는 ‘민족자본이 부재한 현실상황에 대한 절망과 저항’의 표현이고, 실제 영화에서는 ‘예술로서의 영화’를 추구했다고 강조하는 것과 전우형이 심훈 영화의 대중성을 ‘관객지향의 보편성’으로 보는 것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영화매체가 갖는 전문기술(여기에는 독일 표현주의 기법까지를 포함하여)과 심훈 영화의 ‘대중성 혹은 통속성은 별개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중성을 김기진 류의 ‘계몽적 대중화론’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임화의 비판처럼 세속에 함몰한 ‘반동적 소시민성’³⁸⁾ ‘통속소설’³⁹⁾로 보아야하는지는 좀더 궁구해보아야

38) 임화, 「朝鮮映畫가 가진 反動的 小市民性的 抹殺-沈熏 等の 跳梁에 抗하여」, 중의일보, 1928. 7. 28.~8. 4.

할 과제인 듯하다. 즉 소재와 매체 선택에 있어서의 대중성⁴⁰⁾과 의식이 지향하는 통속성(세속적 가치의 수리) 혹은 계몽성의 문제는 좀더 면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5. 여성상 및 서사양식

2000년대 이후 심훈 연구사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방향은 여성상⁴¹⁾에 관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약진한 여성주의 관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성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해가는 여성인물로서 『직녀성』의 인숙에 주목한 것은 최희연의 글이다. 「심훈의 『직녀성』에서의 인물의 전형성과 역사적 전망의 문제」(1988)는 『직녀성』이 ‘인숙과 봉희’라는 두 전형적인 인물의 자각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발전과정과 작가의 전망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근대문학의 여성상을 다각도로 고찰해온 이상경(2001)은 심훈의 「직녀성」을 통해 이중으로 타자화된 구여성의 존재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대문학사에서 신여성과 하층계

39)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40) 박정희는 박사논문에서 심훈의 저널리즘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최용신 모델’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것은 대중지향적 예술관이고, 그의 소설세계는 반 자본주의적 낭만주의의 세계관이라 규명하고 있다.

41) 최희연, 「심훈의 『직녀성』에서의 인물의 전형성과 역사적 전망의 문제」, 『연세어문학』 21, 1988.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9, 2001.

박소은, 「새로운 여성상과 사랑의 이념: 심훈의 『직녀성』」, 『한국문학연구』 24, 2001.

엄상희, 「심훈 장편소설의 “동지적 사랑”이 지닌 의의와 한계」, 『인문과학연구』 22, 2014.

장인수, 「실추된 남성사회와 결여가 있는 여성-심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58, 2017.

급의 여성(강경애)에 대한 논의는 많은 반면 증상층인 구여성(金居性)은 여기서 소외된 존재였다. 『직녀성』은 이러한 구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설로, 봉화의 처 이인숙이 구여성에서 주체적 인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인숙이 이혼하고 아들 일남을 잃고 유치원 보모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모성의 확대, 즉 복순, 세철, 봉희와 함께 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공동체로의 열망의 보여주는 것으로 좌파 민족주의자 심훈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소은(2001)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심훈이 『직녀성』의 인숙을 구여성과 신여성 사이를 매개해주는 이상적 여인상으로 형상화했다고 보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성장이 남성의 가르침(박복순이라는 남성적 변형)에 의해 수행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엄상희(2014)는 심훈 장편소설에서 구현되는 ‘동지적 사랑’에 주목, 기존의 연애소설과 차별성과 한계를 고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멜로와 달리 심훈은 ‘돈과 사랑의 갈등’이 아닌 ‘연애와 사회운동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한 사적 욕망과 공적 대의 사이의 대립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지적 사랑’의 구현에 있어 구여성을 타자화하고, 신여성(소비적 도시여성에서 건설의 농촌현장으로)을 재교육해야한다고 본 것은 남성주체 중심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장인수(2017)는 심훈의 소설이 에로청년, 금욕주의자 등 실추된 남성상과 신여성에 대한 혐오와 관음증을 보여주지만, 탈여성, 결여된 형상으로서의 여성을 통해 대안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젠더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니지만, 최원식과 권희선의 논의는⁴²⁾ 서사체 형식을 통해 『직녀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최원식(2002)은 심훈의 『직녀성』을 서구근대소설과 대결한 동아시아 서사의 계보에

42) 최원식, 「서구 근대소설 대 동아시아 서사 -심훈 『직녀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40, 2002.

권희선, 「중세 서사체의 계승 혹은 애도 -심훈의 『직녀성』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20, 2002.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임화의 ‘통속소설’ 선고는 지나친 것으로 좌우합작의 사회주의자 심훈의 『직녀성』은 “서구주의 또는 근대주의에 함몰된 1930년대 문학의 일반적 경향을 거슬러 구소설과 신소설과 신파소설의 이야기 전통에 기반하되 그 경향과도 독특하게 싸우면서 일궈낸 심훈서사의 핵심”이라고 고평한다. 권희선(2002)의 논문도 최원식의 논의의 자장 안에서 『직녀성』을 다양한 전통 서사체들과 소통하며 독자적 근대소설의 모형을 창출한 서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심훈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심훈의 소설을 좀더 풍요롭게 의미화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심훈은 『직녀성』이나 『상록수』에서뿐 아니라, 특히 소설에서 신여성, 구여성을 당대 남성 작가들이 보여주었던 동경과 혐오의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가령, 경조부박한 신여성이 아닌 혁명동지로서의 여성상인 『동방의 애인』의 세정, 『불사조』의 덕순, 그리고 성장해가는 신여성과 구여성인 『영원의 미소』의 최계숙과 『직녀성』의 인숙, 희생당한 구여성인 『불사조』의 정희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통속성을 넘나드는 서사 지향은 긍·부정 차원을 떠나서 논의해보아야 할 풍부한 지층을 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훈이 부르주아의 속물성을 폭로하기 위해 조명하는 다양한 모던보이의 형상들도 혁명가 남성(이념형과 토착형 등)들과 함께 더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한다.

6. 기독교 및 사상적 원류

심훈과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은 신춘자의 논문(1999)⁴³⁾이다. 신춘자는 이 글을 통해 심훈의 『상록수』의 사상적 근원이 기독교의 희생정

43) 신춘자, 「심훈의 기독교소설 연구」, 『한문경상연구』 4, 1999.

신에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둘째 형이 기독교의 목사로 봉직하였으며, 미션 학교인 지강대학에 다녔다는 점, 그리고 다른 소설에서 예배당에서의 결혼식 장면, 채영신이 기독교 연합회의 특파원 자격으로 청석골로 내려갔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심훈의 『상록수』는 기독교의 희생정신과 밀알 사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의미매김하고 있다.

한기형(2003)은⁴⁴⁾ 1920년 초반의 심훈의 문학적 자양이 성적 욕망,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렬한 낭만적 부정, 기독교라는 세 꼭지점 사이를 왕복하고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특히 「찬미가에 싸인 원혼」과 기독교 관련성을 고찰하면서, 1919년 당시 심훈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우호적 입장이었으며 심훈의 저항정신의 기저가 기독교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 목사 연설에 감복한 사실을 기록한 그의 일기를 들고 있으며, 그런 심훈이 기독교와 떨어진 것은 중국 체험 속에서 좌경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본다.

심훈의 사상을 ‘기독교’로 환원시키지는 않지만, 무로후세의 사상의 영향을 고증하고 있는 권철호의 논문(2014)⁴⁵⁾도 주목할 만한 논의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親朝派 무로후세 코신은 독일이 발터 라테나우의 철학을 수용하여 서구 문명의 몰락 등에 대해 실과하고 직관과 사랑, 희생을 강조한 사상가로, 심훈은 자본주의와 마르크시즘 양자를 모두 비판하고 농촌공동체 회복과 사랑의 사회주의를 주장한 무로후세의 영향을 받았다. 심훈이 지닌 장서의 서지들을 참고하여 무로후세 사상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것은 기존에 담보적이던 심훈 사상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의에서 20세기 초 서구의 반문명 사상, 혹은 세기말적 사상을 수용하여 ‘허무주의’적 정신주의로 나아간 무로후세의 사상이 심훈에게 있어 반자본(반문명이 아닌)으로, 그리고 무로후세와 구별되는 농촌‘계몽’으로 나아간 지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

44) 「습작기(1919~1920)의 심훈」, 위의 글.

45) 「심훈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 -무로후세 코신(室伏高信)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5, 2014.

할 듯하다. 또한 심훈의 민족주의적 관점, 독립에의 열망 등, 무로후세의 사상으로 모아지지 않는 지점에 대한 논의도 덧붙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희생정신을 비롯한 사상적 원류에 대한 논의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심훈의 작품이 개인적 초월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낭만주의나 개인에 안주하는 반동적 소시민성과는 구별되는 공동체 지향성을 확고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몽주의에 관한 논의도 이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그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반드시 하나의 사상적 원류로 귀결시켜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과 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작품에 나타난 영웅주의적 면모에 대한 고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작중인물과 실제 모델

심훈의 창작이 주로 주변인물과 체험에 힘입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다. 최원식(1990), 조남현(1996), 류양선(2003), 조선영(2017)⁴⁶⁾은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심훈 창작 전반에 나타난 ‘모델’을 전면적으로 고찰한 글들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가령 최원식은 심훈 작품에 등장하는 주변의 사회주의자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단재와 우당」, 「R씨의 초상」의 몽양 여운형, 「박군의 얼굴」이 박헌영과 박열, 『동방의 애인』의 이동휘와 박헌영, 현엘리스, 「선생님 생각」의 홍명희 등을 유추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방의 애인』의 영숙은 현엘리스가 아닌 주세죽으로 보아야하며⁴⁷⁾,

46)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조남현, 「〈상록수〉 연구」, 『인문과학논총』 3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6; 류양선, 「심훈의 〈상록수〉 모델론 - ‘상록수’로 살아 있는 ‘사랑’의 여인상」, 『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3; 조선영, 위의 글.

47) 정병준에 따르면 현 엘리스는 3.1운동 직후 상해로 갔지만 박헌영은 현엘리스와 만나기 전인 1921년 봄 주세죽과 결혼했고, 현엘리스는 1922년 일본 유학생 출신

『동방의 애인』의 x와 박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최원식은 『동방의 애인』에 등장하는 지도자 x를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상해지부의 지도자인 여운형으로 보고 있으나 한기형은 ‘틀림없이 이동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기형의 해석에는 심훈을 ‘민족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보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⁴⁸⁾

그밖에도 작중인물과 실제모델 사이의 관련성은 주로 『상록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부분은 심훈 문학 연구의 지평확장을 위해 좀더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심훈 자신 또한 실제 체험에서의 인물의 전형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발전시켜나갔음을 의식하고, 창작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조선영의 논의는 이러한 방향성의 편린⁵⁰⁾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정준과 결혼했다. 그러므로 “박헌영과 현앨리스가 애인 관계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15.

48) 한기형은 최원식의 논의에 기대 “심훈은 박헌영의 행적을 서사적인 골격을 삼으면서도 혁명운동의 방향은 이동휘의 민족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던 것이다”(『서사의 로컬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위의 글, 432쪽)라고 정리하고 있다.

49) “이 소설의 모델은 반분은 실제한 인물이고 반분은 작자의 머리 속에서 창작되어 나온 인물이라고 짐작해두면 대차는 없을 줄 안다. (중략) 계훈은 철두철미의 조선의 현실을 모르고 사회의 동태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는 ‘부르조아’의 자식이여, 정희는 양반의 집에 태어난 전형적 구가정의 여자로서 순정이면서도 과도기에 있는 조선여성의 비극적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정혁이는 안고수비한 뽀뽀, 뽀로의 지식분자로서 사회적으로 보아 일종의 蜂癩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투쟁의식을 상실하고 자아의 성격을 거의 파산 당한 사람. 홍룡과 덕순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전기한 인물과는 환경과 의식과 생활이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무산계급에 속한 전위분자의 한 쌍이다. (중략) 끝으로 ‘주리아’라는 양녀는 모델이 없는 바도 아니다. ‘계훈’의 생활이면을 폭로시키고 환경의 현격을 보이며 독자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양념을 치려는 인물이었만 의외로 이 비현실적인 인물의 존재가 확대되어 수습회를 허비한 것은 작가자신으로서... 그 의도를 의아하기 한두 번 아니었던 것을 부연해둔다. -『불사조』의 모델, 『심훈문학전집』 3권, 탐구당, 1966, 487쪽.

50) 『동방의 애인』의 동렬, 세정, 박진을 임원근, 허정숙, 박헌영으로, 『영원의 미소』의 최계숙은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송계월로 보고 있다. -조선영, 위의 글.

8. 결론

위에서 살펴본 2000년 이후 심훈 연구의 새로운 논의와 성과는 ‘심훈 관련 텍스트의 집대성, 영화 및 다매체, 여성상, 서사양식, 사상성’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논의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향후 더 심도있고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출발점이다. 더불어 심훈의 아동문학, 번역소설(펼벌의 『대지』 등)에 대한 고찰도 새롭게 진행되어야 연구과제로 보인다.

심훈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흥미해보야할 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맺도록 한다. 정치성과 대중성의 간극을 메우려는 연구자들의 무의식이다.⁵¹⁾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 2000년대 이전에는 심훈 문학을 정치성(민족주의자-사회주의자)의 맥락에서 파악했다면, 2000년대 이후는 주로 대중성의 차원에서 고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 ‘대중성’의 고찰⁵²⁾은 정치성과 무관한 것 이루어진 듯하나 최근 심훈의 대중성을 정치성과 사상적 기반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권철호와 박정희의 논의⁵³⁾가 그 예에 속하는데, 이는 류양선의 논의⁵⁴⁾와도 이어진다. 권철호는 심훈의 낭만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로후세 코신의 사상적 영향 하에 반자본주의적 ‘사랑의 공동체’에 교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고, 박정희는 3.1운동의 저항의 ‘열정’으로 이를 통합하고자 한다. 박정희가 석사논문⁵⁵⁾에

51) 한기형, 하상일, 박정희, 권철호 등의 논문을 예로 들 수 있다.

52) 본고에서는 살피지 못했으나 심훈소설의 대중성과 관련하여 이정옥의 시학적 접근은 참고할 만하다.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 1999.

53) 권철호, 위의 글; 박정희, 「심훈 문학과 3·1운동의 ‘기억학」, 『인문과학연구논총』 37, 2016.

54) ‘심훈의 문학적 세계관은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의 양 진영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 모두로 벗어나 있기도 한 것’이라고 보았다. -류양선, 「최우익 한계 넘은 독자의 농민문학-심훈의 삶과 『상록수』의 의미망」, 『상록수·휴화산』(동아출판사, 1995) -박정희, 「심훈 문학과 3·1운동의 ‘기억학」, 『인문과학연구논총』 37, 90 쪽에서 재인용.

서 심훈의 낭만주의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과 상통한다. 박정희는 리얼리즘 소설에 미달한다는 심훈의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며 ‘혁명이나? 사랑이나?’라는 갈등 서사를 ‘낭만주의적 반자본주의적 세계관’으로 해결하고 유토피아 추구로 나아갔다고 본다.

이는 권철호가 제기했던 심훈의 ‘낭만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결고리에 대한 탐구⁵⁵⁾와도 연결된다. 또한 최원식, 한기형, 하상일 등이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사회주의자 심훈’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그리고 이들 연구가 강조하고 있듯 대중성, 낭만성은 입화가 지적했듯 단순히 통속성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지점을 품고 있다. 심훈이 그의 글들에서 보여준 다양한 낭만적 감상은 대중성과 이어지지만 한편 혁명적 감성과도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논의들에 힘입어 기존에 속단으로 그친 사상적 원류와 구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심훈의 낭만성, 대중성, 계몽성, 혁명성, 민중성, 통속성 등의 내용과 그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후속 논의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55) 박정희, 「심훈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2003.

56) 권철호(2014)는 심훈의 ‘사회주의’와 ‘낭만주의’가 교직하는 원류로서 ‘사랑의 사회주의’를 지향한 무로후세 코신의 영향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동지에-사랑’의 양상은 그의 소설이 ‘낭만주의’가 ‘사회주의’ 혹은 ‘반자본주의’와 교직하는 서사구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낭만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일견 모순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심훈의 소설이 마르크스주의적 문제 의식을 통속적인 서사로 귀결시킨다고 평가해 왔다.”-위의 글, 187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 『심훈문학전집』 1~3권, 탐구당, 1966.
심훈, 『심훈 문학전집 ①-그날이 오면(영인본)』, 차림, 2000.
『심훈 전집』 1~8권, 김종욱, 박정희 엮음, 글누림, 2016.

*논저

- 강옥희, 「식민지 시기 영화소설 연구」, 『민족문학사』 32, 2006.
고광현, 『심훈의 시 연구: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경희대 석사, 1984.
고광현, 『심훈의 시 연구-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석사, 1984, 9쪽.
권보드래, 「심훈의 시와 희곡, 그밖에 극(劇)과 아동문학 자료」, 『근대서지』 10, 2014.
권영민, 「카프의 조직과 해체」2, 『문예중앙』, 1988 여름호.
권철호, 「심훈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무로후세 코신(室伏高信)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5, 2014.
권희선, 「중세 서사체의 계승 혹은 애도-심훈의 『직녀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0, 2002.
김선, 「객혈처럼 쏟아낸 저항의 노래: 심훈과 작가적 모랄과 고뇌에 관하여」, 『비평문학』 5, 1991.
김경수, 「한국 근대소설과 영화의 교섭양상 연구: 근대소설의 형성과 영화 체험」, 『서강어문』 제15집, 『서강어문』 15, 1999.
김민정,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제1회 심훈문학연구소 심포지엄』, 2015. 9. 18.
김서은, 『매체별 일본영화의 변용양상 연구 : 原作小説, 大衆藝術, 教科書, 音樂을 중심으로』,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박사, 2014.
김외곤, 「심훈 문학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현대문학』 31, 2010.
김이상, 「심훈 시의 연구」, 『어문학교육』 7, 1984.

- 김재홍, 「심훈-저항의식과 예인자적 지성」, 『한국현대시인 연구』, 일지사, 1990.
- 김종욱, 「〈상록수〉의 ‘통속성’과 영화적 구성원리」, 『외국문학』, 1993, 봄.
- 김화선, 「심훈의 『영원의 미소』에 나타난 근대적 글쓰기의 양상」, 『비평문학』 26, 2007.
- 노재찬, 「심훈의 「그날이 오면」: 이 시에 충만한 항일민족 정신의 소유 고」, 『교사교육연구』 11, 1985.
- 류양선, 「심훈의 <상록수> 모델론-‘상록수’로 살아있는 ‘사랑’의 여인상」, 『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3.
- 박명순, 『심훈 시 연구』, 한국외대 석사, 1997.
- 박소은, 「새로운 여성상과 사랑의 이념: 심훈의 『직녀성』」, 『한국문학연구』 24, 2001.
- 박정희, 「심훈 문학과 3·1운동의 ‘기억학」」, 『인문과학연구논총』 37, 2016.
- 박정희, 「영화감독 심훈의 소설 <상록수>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1, 2007.
- 박정희, 『1920~30년대 한국소설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 박사, 2014.
- 박정희, 『심훈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2003.
- 백승구, 『심훈의 재발견』, 미문출판사, 1985.
- 송지현, 「심훈 직녀성 고-그 드라마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1, 1993.
- 신경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지문사, 1982.
- 신용순, 「심훈 시조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6, 2017.
- 신춘자 「심훈의 기독교소설 연구」, 『한몽경상연구』 4, 1999.
- 양국화, 『한국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인하대 석사, 2011.
- 엄상희, 「심훈 장편소설의 “동지적 사랑”이 지닌 의의와 한계」, 『인문과학연구』 22, 2014.
- 엄상희, 「심훈의 서사텍스트와 남성 영웅의 형상」, 『한국어문교육』 22, 2017.

- 유병석, 「심훈의 생애 연구」, 『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 윤기미, 「심훈의 중국생활과 시세계」, 『한중인문학연구』 28, 2009.
- 이병문, 『한국 항일시에 관한 연구: 심훈, 윤동주, 이육사를 중심으로』, 공주 사범대학 석사, 1984.
-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9, 2001.
-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 1999.
- 이호림, 『1930년대 소설과 영화의 관련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04.
- 임화, 「朝鮮映畫가 가진 反動的 小市民性的 抹殺-沈熏 等の 跳梁에 抗하여」, 중외일보, 1928.7.28.~8.4.
-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장인수, 「실추된 남성사회와 결여가 있는 여성-심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8, 2017.
- 전우형, 「심훈 영화비평의 전문성과 보편성 지향의 의미」, 『대중서사연구』 28, 2012.
- 전우형, 『1920~1930년대 영화소설 연구: 영화소설에 나타난 영상-미디어 미학의 소설적 발현 양상』, 서울대 박사, 2006.
- 전홍남, 「심훈의 영화소설 <탈출>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2, 2004.
- 전홍남, 「한국 근대소설과 영화의 교섭 양상 연구 -1930년대 소설의 영화적 기법과 영화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18, 2002.
-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15.
- 조남현, 「<상록수> 연구」, 『인문과학논총』 3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6.
- 조리영, 『한중 근대 저항시 비교 연구: 1920~1930년대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2013.
- 조선영, 「심훈 단편소설에 나타난 창작방법 고찰」, 『한국현대소설연구』 65, 2017.

- 조제웅, 『심훈 시 연구』, 영남대 박사, 2006.
- 조혜정, 「심훈의 영화적 지향성과 현실인식 연구 : <탈춤>, <먼동이 틀 때>, <상록수>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31, 2007.
-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론집』 34, 2006.
- 주인, 「영화소설 정립을 위한 일고: 심훈의 「탈춤」과 영화평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2006.
- 최동호,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가슴이여-7인의 항일 민족시집』, 시인사, 1982.
- 최원식, 「서구 근대소설 대 동아시아 서사-심훈 『직녀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40, 2002.
-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김학성 외, 『韓國 近代 文學史의 爭點』, 창작과 비평, 1990.
- 최희연, 「심훈의 『직녀성』에서의 인물의 전형성과 역사적 전망의 문제」, 『연세어문학』 21, 1988.
- 하상일, 「심훈의 「杭州遊記」와 시조 창작의 전략」, 『비평문학』 61, 2016.
- 하상일, 「심훈과 중국」, 『비평문학』 55, 2015.
- 하상일,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1, 2015.
- 하상일, 「식민지 시기 상해 이주 조선 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 50, 2013.
- 한기형, 「서사의 로컬리티, 소실된 동아시아 -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63, 2008.
- 한기형, 「백랑의 잠행 혹은 만유」, 『민족문학사연구』 35, 2007.
-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 한점돌, 「심훈의 시와 소설을 통해 본 작가의식의 변천과정」, 『국어교육』 41, 1982.

【Abstracts】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Research of Simhun Literature

Jung, Eun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the new discussion of the Simhun research that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2000s. The new discussions and achievements of the Simhun study are gathered into the culmination of the texts related to Simhun, film and multimedia, feminine, narrative form, and ideology.

The following is summarized. In the 'Biography and the Bibliography', researcher discussed about the period of stay in China, the discovery of new work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bibliography of 'the last of the emperor'. In the aspect of 'poetry research & experience in China',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entire poem has been made, but the issue of 'how to view the aesthetics of Simhun Sijo' and the issue of the total number remains. In addition, 'How to look at the meaning of stay in China played an important point in interpreting Simhoun's poem.

'Cinema and Multimedia' is the newest and most abundant field of discussion since the 2000s. Research focusing on the 'filmmaker' Simhun and his exploring movies, movie novels, and criticism of the film led to discussions such as "mutual textuality, popularity, artistry, professionalism, and enlightenment." In 'Women's Prize & Narrative Style', the gender issue in the novel Siminhun is newly illuminated from

the viewpoint of 'old woman, modern girl, comradeship love', and the modern novel model.

In 'Christianity and ideological origin', it is noted that the sacrificial spirit and the enlightenment of Simhu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Christianity or the Murohusen's thought. It is an important field of study because he confessed that Simhun often refers to a person who is presumed to be a real person in his work and refers to the surrounding model in his creation. A more integrated view and detailed analysis are needed for the characters and actual models of the novels as well as poetry. In the Simhun study,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novel seems to be a new research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Key words: Simhun researcher, film, multimedia, ideology, stay in China, feminine, narrative

이 논문은 2018년 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